천태종 고려대장경 판각 불사 시작

천태종이 고려대장경 초조본 〈첨품묘법연화경〉 전본(全本) 총 233장과 외장본 일체를 판각하는 각성(刻成) 불사에 돌입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8월 1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서 '고려대장경 초조본 〈첨품묘법연화경〉 각성불사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고려대장경 초조본 〈첨품묘법연화경〉 전본(全本) 총 233장과 외장본(外藏本) 판각은 대장경문화학교(교장 안준영)가 맡아 2019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고려대장경 초조본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국민을 화합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염원으로 조성됐다"며 "대장경 조성은 부처님 가르침을 봉대하고 전하는 매우 경건한 일이자 한 시대의 정신문화를 총결하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첨품묘법연화경〉 각성불사는 △벌목 △다듬기 · 삭히기 △소금물에 삶기 △판하본 제작 △판각 △오탈자 △마구리달기 △장석달기 △방자못 고정 △인경 △제본 등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성역화불사 모연 캠페인 성료

조계종성역화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8월 17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릴레이 캠페인'을 회향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29일부터 5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6,866만원이 모금됐다. '모연릴레이 캠페인'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8명의 스님(중앙종회 의장 성문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스님,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혜총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총도감 지현 스님,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문자메시지로 캠페인 안내문을 전달하면 신도들이 다른 신도 3명에게 알려가는 릴레이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동참자 중 경북 봉화의 한 불자는 자신과 인연이 깊은 스님이 성역화불사에 나서는 것을 보고 50여 불자에게 권선해 함께 동참했다.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에서는 10월경 제2차 전국사찰동시초하루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모연동참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初發心 잊은 불교, 차별을 낳다

현각 스님 발언으로 본 한국불교– ② 계급화 된 차별문화

행자시절 고압적 분위기부터
비구 · 비구니 차별적 대우까지
불교계 산재한 '변질된 유교문화'

사부대중 역할만 차이 있을 뿐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같아

 # 호남권 사찰에 있는 A스님은 과거 출가 후 동국대 재학시절 있었던 황당한 일을 기억한다. 선배스님들이 자신과 동기들에게 정각원까지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는 등 불합리한 일을 강요한 것이다. 선배가 시켜서 하릴없이 했지만 고압적인 분위기에 그 이유는 물을 수 없었다.

 # 비구니 B스님은 은사스님과 어느 사찰을 방문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은사스님과 함께 비구스님에게 인사차 절을 했는데 그 스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절만 받았다. 은사스님보다 법랍이나 세납 모두 한참 적은 비구스님이었기에 한편으론 괘씸했다.

현각 스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어떻게 조선시대 정신에 어울리는 교육으로, 합리주의 바탕에서 자란 서양인들을 (한국불교에) 보낼 수 있을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유교적 관습 없는 환경, 남녀 · 국적 차별 없는 정신'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국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외국승려의 이기적인 시각"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현각 스님의 지적은 앞서 소개한 일화와 같은 '변질된 유교문화'에 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前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이를 '일제잔재인 군대문화',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꼬집었다.

조계종의 한 교구본사서 행자생활을 하다 속세로 돌아온 C씨는 "행자들 사이에서는 행자반장의 말이 곧 법"이라며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행자반장이 혼내면 대꾸조차 못하는 분위기다. 이곳이 절집인지 군대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강압적인 절집문화는 행자생활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과거에는 후배 행자에게 일을 떠넘기고 대접만 받으려 하는 이에게 '조실행자' '방장행자' 등 웃지 못할 꼬리표도 붙었다.

비구중심 승려문화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차별문화는 비구와 비구니, 출가와 재가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먼저 비구와 비구니는 '비구니 팔경법'과 '정법 500년 감소설' 등으로 갈등을 빚는다. 여성 출가를 반대하던 부처님이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의 출가를 허락하면서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진위여부 등을 놓고 학자 간에도 이견이 있다. 한국불교가 승려중심, 비구중심 성격을 갖게 된 것도 이 같은 영향을 배제하긴 어렵다.

문제는 이런 경전내용이 정설처럼 전해져 비구니에 대한 차별대우와 인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비구니의 참종권 제한이 대표적이다. 조계종의 경우 비구니는 중앙종회의원 81석 중 10석만이 배정돼 있으며,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 중에서도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1994년 종단개혁과 함께 신설된 것으로 이전에는 비구니에게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종정과 원로의원 역시 비구만 가능하다. 때문에 중앙종회서 비구니 권리 신장을 포함한 종법개정안이 부결됐을 때 비구니종회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안타까운 점은 재가불자 사이에서도 비구니보다 비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다는 것이다.

비구니 B스님은 "어느 재가불자는 '비구니스님한테 천도재를 지내니까 비구스님보다 조상 천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전반적으로 비구니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 3월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총무원장 직선제를 하면 비구니스님들이 미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어 종단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구니들의 세력화를 우려한 것을 미뤄볼 때 비구니 권리 신장에 대한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 · 재가 간 보이지 않는 벽

이외에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인한 마찰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회서 이사 중 한 스님이 부회장인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에게 "진각종은 승가냐 재가냐" 물으며 '스님 대하는 재가의 태도'를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일선 사찰에서 나이 지긋한 신도에게 손아랫사람 대하듯 반말을 하는 스님의 발언이나 종무원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모습 등은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기도 B사찰 신도인 이 모씨는 "재가자들이 스님을 수행자로서 존경하는 모습을 간혹 웃어른이나 직장상사 대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부처님께서는 오직 행위에 의해서 귀천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몇몇 스님들은 신분으로 결정된다고 믿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준 前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2006년 9월 〈불교평론〉에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하열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궁극적 목표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그 역할이 나눠져 있을 뿐"이라며 "불교발전은 불교 교단의 원형인 '출가-재가'의 이원구조를 적절하고도 창조적으로 살려나갈 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차별문화의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초발심 정신'을 꼽았다. 스님은 본지통화서 "기본적으로 한국불교가 세속에 물들어 출가정신인 초발심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 때문에 스님 노릇을 하고, 왜 불제자가 됐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진정한 자성과 쇄신을 통해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남 · 북 대화, 불교계선 포기 없다"

8월 15일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 대화 · 민간교류 강조



8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광복 71주년 기념 '8.15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광복 71주년 기념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발원했다.

8월 1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가 주관하는 광복 71주년 기념 '8.15 한반도 평화기원 법회'가 봉행됐다. 이 자리서 불교계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언문을 발표했다.

민추본 본부장 법타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제언문서 종단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히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와 협상이 때론 답답하고 순탄치 않을 수 있을지언정, 이를 포기한다면 다툼만이 있을 뿐"이라며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우호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교류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도 민간교류 단절에 대한 안타까워했다. 종단협 부회장 홍파 스님이 대독한 봉행사를 통해 "분단으로 인해 고향과 가족들과 떨어져 생사도 모른 채 살아야만 하는 이산가족들의 사연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비극이며, 큰 아픔"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교 역시 불단과 전쟁의 참회 속에서 무수한 불교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1700년 유구한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단절 ·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무기계약' 제도 도입에 논란

조계종 총무부 8월 17일 해명…"차별 없다"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에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규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계약의 기간이 없고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의 특성상 정규직과 임금 및 근무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무기계약직 도입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조계종 총무부는 8월 17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계종은 7월 20일 종무회의를 통해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채용 내규를 담은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브리핑에 참석한 총무부 관계자는 "종단 예산과 인건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군을 신설한 것"이라며 "복리후생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호봉 및 급여체계가 동일하며 경조사비, 양육지원비, 학자금 지급 등도 같다. 다만 정규직은 직급이 1~7급인 반면 무기계약직은 5~7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직급 승진이 5급에서 멈추며 이에 따른 호봉 상승도 제한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채용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사회노동분야에서 조계종의 대외적인 신뢰성에 타격이 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8월 16일 조계종 내부 통신망의 공개글을 통해 "종무원들의 노동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절차를 밟아 중지를 모으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은 차별성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한 사전 논의가 필요했다고 본다"며 노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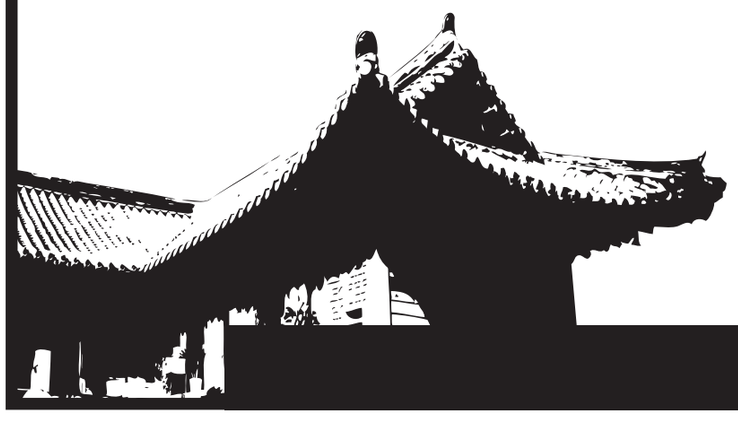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